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번동)

# 우리동네 돌봄 공동체 모여라

2021년 자녀돌봄 품앗이



성인여성가족부 연구협력사업

여성가족부 지원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Gangbuk-gu Health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자녀돌봄 품앗이



- 1. 글씨 자녀 돌봄 품앗이
- 3. 꿈링턴 자녀 돌봄 품앗이
- 5. 송아지 자녀 돌봄 품앗이
- 8. 수유 어린이 자녀 돌봄 품앗이
- 11. 싱글벙글 자녀 돌봄 품앗이
- 13. 아랑아랑 자녀 돌봄 품앗이
- 15. 앙상블 자녀 돌봄 품앗이
- 17. 우이짱 자녀 돌봄 품앗이
- 19. 한글 특공대 자녀 돌봄 품앗이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b>글쎄</b>		
<b>돌봄주체자 수</b>	4	<b>돌봄아동 수</b>	8
<b>주 돌봄 대상 연령</b>	(√) 유아기 3~6세	<b>주 활동지</b>	야외, 가정

<b>돌봄 공동체 소개</b>	<p>&lt;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gt;</p> <p>저희는 2017년 초에 첫째들을 낳고 보건소 엄마모임, 지역 맘카페,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첫째 아이들 시기도 비슷하고 마음도 잘 맞아,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서로 이 힘든 육아를 함께 하는 육아 동지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작게 크게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지속된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두둥!!! 세상어나 또 비슷한 시기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 2019년 상반기 비슷한 시기에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들까지 함류해 정말 대가족 단위로 함께 모임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품앗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돌봄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자주 모임을 갖고 때로는 첫째들만, 아니면 둘째들만 모여서 연령에 맞는 촉감놀이, 운동, 함께 책읽기등을 자연스럽게 하였는데, 지금은 주제도 미리 정하고 준비물도 챙겨서 많은 경험과 사회생활을 키워주는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p> <p>&lt;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gt;</p> <p>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다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주말 포함 주 2회 정도 모여 다양한 오감 활동을 진행하고 엄마들뿐 아니라 시간이 되는 아빠들도 놀이에 참여하여 점점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육아를 함께 함과 동시에 주말 등을 이용해 공원이나 어린이박물관, 어린이공연, 여행을 함께 다니며 아이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도 하고 서로 돕고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모습 등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은 각자 만든 아이 반찬을 서로 나누어 매일 해야하는 반찬 고민을 덜어주고 부모의 편식으로 인해 잘 먹이지 않는 음식도 새로이 경험할 수 있는 반찬 나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 <p>5년 동안 돌봄공동체 활동을 해왔던 경험으로 이모, 삼촌, 친구, 동생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기에 어린이집이나 아이들만의 사회에서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친구만 있다면 소소한 놀이도 최고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p> <p>&lt;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gt;</p> <p>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야외에서 활동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빠들이 같이 참여해 주었으나 참여가 아닌 모임의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빠들의 참여 비중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커가니, 엄마들이 놀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 아빠들이 몸으로 놀아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코로나로 인해 모임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 영상통화로 만나거나 독서 활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찾을 정도예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p>
--------------------------	---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하남 나무고아원에서  
이모들이 직접 준비한 간식과  
점심을 맛있게 먹고  
모래놀이, 비눗방울 놀이, 인디언 놀이 등  
신나게 놀았던 날



여름이 시작되어 무더웠던 날  
북서울 꿈의숲에서 직접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아빠들과 물총놀이, 물풍선 터뜨리기,  
원반놀이 등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날.



외갓집에 방문하여 수영장에서 놀고 밭에서  
작물도 수확하여 음식도 해먹고 계곡에서  
신나게 놀았던 1박 2일.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귤주스도 맛있게 먹고  
보물찾기, 잡기놀이, 풍선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이한 날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꿈링턴		
<b>돌봄주체자 수</b>	4명	<b>돌봄아동 수</b>	4명
<b>주 돌봄 대상 연령</b>	(✓) 유아기 3~6세	<b>주 활동지</b>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 돌봄 공동체 소개

### <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 ‘꿈링턴’은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워킹맘 4명과 4명의 아이들이 함께 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명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꿈의 숲~~’ 건물 이름에서 따와 애칭으로 꿈링턴이라고 정했습니다. 자녀돌봄품앗이 활동 덕에 아이들과 꾸준히 소통 할 수 있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 <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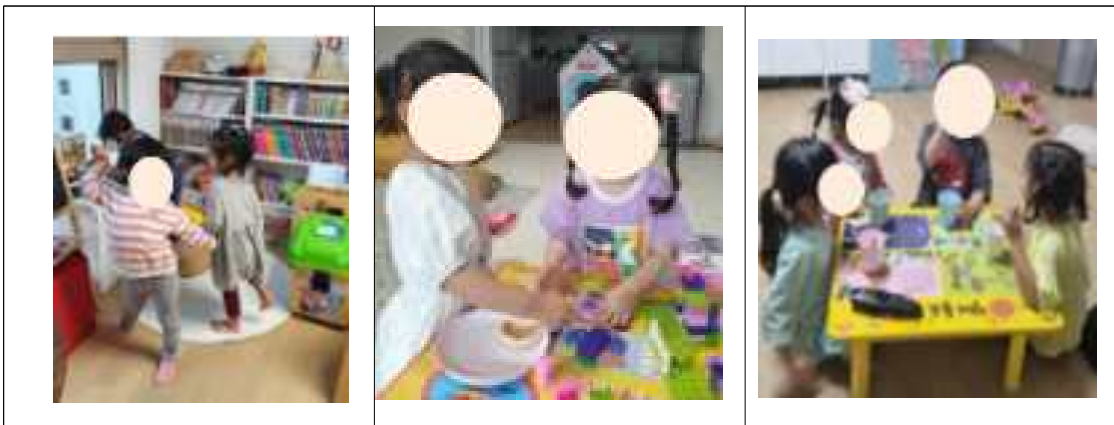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공동육아를 하고 있어요. 하원을 같이하면서 동네산책도 다니고 어린이집 연장선처럼 지치지 않고 놀이하는 우리 예쁜 아이들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이지 못 할 때는 서로 어떤 놀이가 좋았었는지 서로의 노하우도 공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

처음 자녀돌봄 품앗이를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모든 엄마들이 워킹맘이 되어서 많이 바빠졌지만 그래도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교육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면서 육아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같은 연령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대한 팁도 서로 공유하면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함께 잘 지내고자 합니다~

###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 [함께 모여 공동육아하기]

역할놀이, 블록놀이, 간식시간도 가지면서 서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모습을 보니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활동]**

부모와 함께 젤리를 만들면서 촉각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액체가 말랑말랑 젤리로 변화는 모습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등하원 같이 하기]**

하원하는 길에 놀이터도 들리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즐거워하는 꿈링터 아이들입니다.



**[미술놀이]**

색종이로 할 수 있는 놀이를 한 가지씩 생각해서 다른 가정 에 알려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색종이와 풀을 이용하여 모빌 만들기, 색연필로 색칠하기, 색종이 꽃으로 요리하기, 오려서 예쁘게 꾸미기 등 한 가족도 같은 활동이 없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송아지		
<b>돌봄주체자 수</b>	3	<b>돌봄아동 수</b>	5
<b>주 돌봄 대상 연령</b>	(V) 아동기 7~12세	<b>주 활동지</b>	- 집 - 북한산 둘레길

<b>돌봄 공동체 소개</b>	<p><b>&lt;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gt;</b></p> <p>2014년 어린이집에서 만난 친구들의 모임이 커져 아홉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열정 넘치고 힘이 남아도는 아이들의 육아 고민을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고민은 자녀 돌봄 품앗이를 통해 해결되었으며, 이는 더욱 끈끈한 유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바람직한 결과는 아빠와 아이들의 시간 증가였습니다. 점점 아빠들의 육아시간이 늘어나고,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좋아졌습니다. 반면 엄마들의 육아시간의 감소로 아주 조금씩 엄마들의 개인시간이 생기게 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빠들이 주체가 되어 토요일에 자전거 타기, 인라인 타기, 독서활동, 수영 등으로 아빠들 또한 본인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 친구들과의 선생님께서도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아빠 2~3명이 아이 아홉 명을 돌보는 활동은 쉽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아했습니다.</p> <p>한해를 거듭할수록 이사 가는 가족도 생기고 자녀의 연령차에 따라 현재는 3가족이 강북구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p>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의 인원수 제한으로 아빠들의 참여나 모임자체가 힘겨워 지고 있지만 꾸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고학년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p> <p>너무나 아쉽지만, 거리두기로 인하여 아이들의 품앗이 또한 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gt;</b></p> <p>품앗이 9년 차의 끈끈한 유대는 다른 품앗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격태격을 떠나 가정의 거의 모든 대소사를 알고 있는 정말 가족 같은 품앗이입니다. 또한 아빠들만의 육아 품앗이,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둘레길 산책을 비롯한 아빠와 아이만의 활동이 가능한 품앗이입니다. 코로나가 단계가 심해지기 전 가까운 수영장이나 운동장에서 아빠와 아이들끼리만 하는 활동은 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입니다. 물론 아빠가 참여하도록 내조하는 일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엄마와는 다른 아빠의 역할을 통해 좀 더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간끼리도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빠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아빠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한 활동이 주로 실외에서 활동적인 활동이어서 실내에서 비대면 활동으로 고민하다보니 21년도에는 엄마학습 품앗이 활동으로 피아노 학습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 <p>고학년인 송아지 그룹은 매주 진도를 계획하여 피아노 교육을 시작했는데 서로 같이 어울려 하다 보니 항상 그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의 부모들의 다양한 재능을 살려서 만들기, 요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gt;</b></p> <p>품앗이를 처음 시작할 때의 어린 자녀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룹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6-7년을 같이 알고 지내왔던 그룹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품앗이</p>
--------------------------	--

이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품앗이 활동은 변화겠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고민하면서 발전하는 돌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1년 자녀돌봄 송아지 품앗이 그룹의 큰 계획은 거리두기의 단계완화를 기대하며, 지리산 등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만능맨을 육성하자. 인라인, 자전거, 보드, 스키, 수영 등 아빠들의 재능 나눔으로 공부만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놀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적극적인 아빠들의 참여로 만능스포츠맨을 가지 송아지 그룹을 기대해 봅니다.

###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 [요리활동]

코로나19를 인한 걱정인원의 모임을 통해 화과자와 초코렛 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학습품앗이 활동]

피아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주 음악이론도 배우고 연탄곡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이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피아노 연주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만들기]**

목재를 이용한 조립하기  
조각들이 너무 작아서 초 집중을 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천천히 만들면서 한  
주동안 지냈던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바  
빳답니다. 조립할 때 아빠의 도움을  
적극 받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실외활동]**

배드민턴을 오랜만에  
편을 정해 진행했습  
니다. 오랜만에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  
다니니 어느새 땀이  
한가득!!

아빠들의 배드민턴의  
노하우도 들을 수 있  
었습니다,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수유어린이		
<b>돌봄주체자 수</b>	3명	<b>돌봄아동 수</b>	8명
<b>주 돌봄 대상 연령</b>	(V) 아동기 7~12세	<b>주 활동지</b>	강북구 번2동

<b>돌봄 공동체 소개</b>	<p><b>&lt;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gt;</b></p> <p>수유어린이 돌봄 공동체는 수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졸업하고 수유초등학교로 입학할 하는 친구들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p> <p>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보와 돌봄이 필요한 초1~2학년기에 서로에게 도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독서활동 및 주말엔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 체험 활동을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자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벌써 3년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p> <p>2020년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시작으로 더욱 활발하게 돌봄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gt;</b></p> <p>2019년 초1학년 때 수유어린이 공동체를 결성하여 아쿠아리움, 갯벌체험, 자전거 타기, 캠프, 키즈 카페 이용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상시프로그램을 참여와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자녀 돌봄 품앗이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는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 및 집에 모아서 만들기 활동, 동네 탐방하기 활동, 책읽기 활동,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기 활동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외부 문화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만들기 활동, 요리 활동등을 많이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집에서의 시간이 많아짐에따라 게임과 유튜브에 빠지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21년 품앗이 목표는 매일 오후 4시경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서 무조건 1시간씩 놀기로 결정하여 줄넘기도 하고, 잡기놀이, 솜바꼭질 등 외부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정에 있는 책들을 빌려서 보고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도서를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독서상 시상에도 오르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시기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저희 부모들에게도 무척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을 할까 항상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수유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품앗이 활동은 이제 너무나 하나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수유 돌봄 공동체입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gt;</b></p> <p>지금까지 수유어린이 돌봄공동체를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p>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점점 활동범위가 축소 되어가고는 있지만 집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의 협력자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접할수 있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돌봄 공동체의 모습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활동모습을 통해 우리공동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정보와 도움으로 많은 발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활동과 체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1) 갯벌 체험 활동**



주말을 이용하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서해안 갯벌로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엄마와 활동하다가 아빠들도 함께 활동하게 되어 아이들이 더욱 더 즐거워 하였습니다.

**2) 수박화채 만들기 활동**



함께 모여서 수박한통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박속을 뚫뚫 긁으며 너무 신나했고 속이 빈 수박을 모자삼아 머리에 쓰고 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이, 산책하기**



매일 한시간씩 놀이터에서 놀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나가서 놀지 않았을텐데 여럿이 함께 놀이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4) 버섯 키우기 사진



코로나 19로 인해 함께 각자 가정에서 버섯키우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매일 물을 주면서 자라나는 버섯을 보고 생명의 자라남을 신기해하고, 또한 다자란 버섯으로 구워도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으니 아이들이 잘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5) 에코백 만들기



아이들이 함께 모여 환경을 생각하며 에코백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텀블러, 에코백 만들기 활동을 통해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일회용품 줄기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싱글빙글		
<b>돌봄주체자 수</b>	3명	<b>돌봄아동 수</b>	8명
<b>주 돌봄 대상 연령</b>	(V) 아동기 7~12세	<b>주 활동지</b>	강북구 번2동

돌봄  
공동체  
소개

**<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

싱글빙글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언제나 싱글빙글 웃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 육아를 하자는 의미로 지은 모임명이다. 처음 시작 계기는 어린이집 친구로 만나 친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다른 가족이랑 다른 점은 세가족 모두가 다동이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다동이 가족이라 육아도 남들보다 많고 월해도 손이 많이 갑니다. 서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육아 방법도 소통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즐겁고 좋은 활동을 하면서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서로 더욱 친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또래 연령도 같고 서로의 상황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로서로 같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

돌봄 공동체 한 가족 중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면서 품앗이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제안했을때 처음에는 아이3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서로 리더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기로 한 품앗이 활동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서로 모여서 진행하면서 서로의 가족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함녀서 함께하는 저희 품앗이 가족들을 다른 가족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였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에 제한이 생기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그룹은 2가정만 모여도 자녀만 6명이고 모든 가족이 모이게 되면 12명이 되니 참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서로의 활동방법을 고민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같이 놀이터에서 만나 실외활동으로 상황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품앗이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돌봄공동체 활동을 몰랐다면 아이들은 마냥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더 노출되고 저희 부모들도 육아에 지쳐 낙다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임의 자랑 거리는 다동이 가족이라 서로 협동이 잘 되고 언니, 오빠가 동생들 돌보는 일을 엄청 잘 합니다. 엄마들이 볼 때마다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저희 모임에서 손유희,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엄마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

리더인 저는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리더인 엄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공동체 활동을 3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어서 돌봄공동체도 활성화하면 함께 마을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놀이부터 배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 돌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많은 문제가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돌봄문화가 형성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싱글빙글 품앗이는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모범이 되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실외 놀이]**

놀이터에 모여 과자 따먹기, 종이 접기 날리기, 풍선 떨어뜨리지 않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활동]**

서로 정해진 활동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노하우 알려주기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골판지 띠지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아랑 아랑		
<b>돌봄주체자 수</b>	4	<b>돌봄아동 수</b>	7
<b>주 돌봄 대상 연령</b>	(V) 유아기 3~6세 (V) 아동기 7~12세	<b>주 활동지</b>	벽산 라이브 파크 APT 놀이터 각 조원들의 집

<b>돌봄 공동체 소개</b>	<p><b>&lt;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gt;</b></p> <p>우리 4가족의 아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아랑 아랑’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이제는 훌쩍 커버린 8살 재준이부터 7살 하운이, 5살 베일리, 성준이, 시운이, 태은이 그리고 3살 태오에 이르기까지 매일 오전 등/하원을 함께 하며 “같은 어린이집” 과 “또래” 라는 공통점에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회의를 시작으로 부모 참여 수업, 소풍으로 어색하게 나누는 인사는 방과 후 놀이터로 이어졌고, 베일리 엄마가 조심스레 제안한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 로 그 인연이 완성되었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gt;</b></p> <p>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페이스 메이커’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처음 해보는 육아에 지칠 때도, 어려움에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마다 먼저 그 지점을 지나온 엄마가 손을 내밀어 주고, 방향을 이끌어 줍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 그 역할들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육아’ 라는 긴 레이스를 함께 있어서도 ‘함께’ 달리며 고민을 나눠주는 공동체 친구들이 있어 든든함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모두 모여 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였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각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요리’ 활동이 많은 것도 우리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젤리 만들기’, ‘김밥은 왜 김밥이 되었을까?’ 책 읽고 김밥 만들기, ‘건강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요리’ 활동은 아이들의 높은 환호를 받았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gt;</b></p> <p>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한 오프라인 모임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상 모든 학교 혹은 유치원 소풍, 견학이 멈춰진 상황에 그 연령대에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공백이 우리 공동체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메꿔질 수 있도록 코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p>
--------------------------	---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지난 2월 함께 ‘눈사람 만들기’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리고 ‘눈’ 과 함께 즐거운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 활동사진입니다. 3세~8세 아이들의 흥미를 골고루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이지요.

“소떡소떡 만들기 - 김\*준&\*준 형제”



가능하다면 매달 활동을 결정할 때, 달에 있는 특별한 날 혹은 유의미한 날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하나씩 넣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함께 리스 만들기를 진행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 이\*은 & 정\*운 어린이”



무더운 여름, 공동체가 오랜만에 합체! 놀이터에서 하는 물총 놀이와 놀이 중간 중간 맛보는 간식은 더위를 잊게 합니다!

“물총놀이 - 이\*오 & 정\*운 어린이”



책을 더 재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독서 후 확장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우리 몸’ 책 읽고 몸 탐구해보기 활동!

“어스본 우리 몸 - 베\*리 아빠 & 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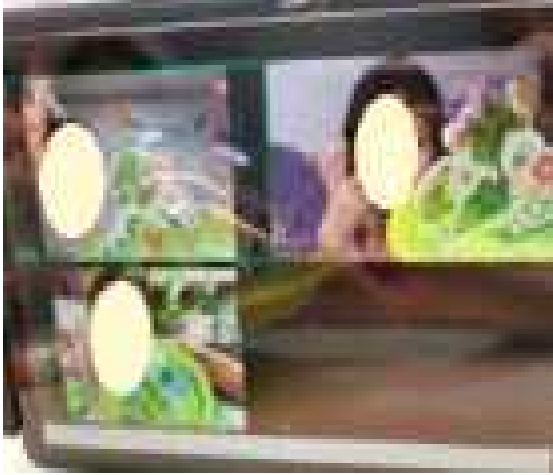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양상블		
<b>돌봄주체자 수</b>	3	<b>돌봄아동 수</b>	4
<b>주 돌봄 대상 연령</b>	(V) 유아기 3~6세 (V) 아동기 7~12세	<b>주 활동지</b>	강북문화예술회관

<b>돌봄 공동체 소개</b>	<p><b>&lt;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gt;</b></p> <p>안녕하세요.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양상블입니다. 저희 모임 이름의 뜻처럼 이*원, 김*친구는 한 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고, 7살 졸업때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최*연 친구도 5살때부터 같은 반이었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한 만큼 친한 사이라 모임전 부터 돌봄공동체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체험하고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여전히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gt;</b></p> <p>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와 다섯 살 동생까지 모두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고 대면활동도 어렵게 되었지만 그래도 돌봄공동체 모임 때문에 아이들이 따로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줌으로도 즐겁게 활동하고 작품활동 등을 할 때에는 서로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누가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자랑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며 코로나19 속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두 가족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등하교도우미 역할을 해주기도하며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라 단합이 잘되고 집이 가깝다보니 외부활동 할 때도 같이 어울려 도착지까지 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헤어지기 전 까지 아쉬워한답니다. 다섯 살 동생도 누나들이 잘 챙기고 동생도 또한 누나들과 잘 어울려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뛰어 놀고 문화생활을 하는걸 많이 좋아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해 아쉽지만 만들기, 그리기 등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각자 생각해놓았다가 매달 의견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gt;</b></p> <p>끈끈한 우정을 다진 친구들이고 초등학교 생활도 잘 적응한 착하고 활발한 성격들이라 앞으로 더 단합하여 아이들이 주체자가 되어 활동의 주제 및 계획 등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므로 부모들은 옆에서 보조역할을 잘 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동안 하지 못한 문화생활, 전시회등 관람, 많은 외부 체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성별이 같은 여자친구들과 귀여운 동생이 푹푹 뭉쳐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면서 재미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을 더 배우며 성숙한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p>
--------------------------	---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중으로 활동하며 만들기로 완성된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번 여름 활동으로 모기기피제와 바르는 모기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집에서 모여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각자 집중하여 만드는 표정과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린이미술관을 관람 한 날^^  
친구들과 정말 신난 모습이네요.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나아져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방문하여 여러 작품들을 구경하고 책도 보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카드케이스를 각자 멋지게 걸고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우이짱		
<b>돌봄주체자 수</b>	3명	<b>돌봄아동 수</b>	3명
<b>주 돌봄 대상 연령</b>	( v ) 청소년기 13~19세	<b>주 활동지</b>	서울 박물관, 동네

## 돌봄 공동체 소개

**<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돌봄공동체) ” 우이짱 “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남, 여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난 인연으로 학습이 아닌 다양한 경험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라는 목표로 품앗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 품앗이 활동을 이어 오면서 아이들끼리의 정보, 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춘기가 오는 시기에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

우이짱은 아이들의 흥미거리를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활동을 정하고 박물관 체험, 요리 활동, 독서활동, 보드게임등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박물관 견학 후에는 관련된 확장 활동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리커처 거리를 방문한 후에는 서로의 모습의 캐리커처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하였으며, 이웁피움이라는 봉제박물관 견학 후에는 아이들과 관심있는 봉제만들기 활동을 직접해봄으로써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방과 후에 독서토론이나 학교 숙제를 같이 하기도 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서로 개발한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활동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우이짱 품앗이 그룹모임은 저희 가정들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 후의 성취감과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부 스트레스나 친구관계의 고민거리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사춘기시기에 친구들과의 우정을 잘 키워 나가고 있는 우이짱 그룹과 함께 부모들도 자녀 연령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

강북구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 부모들은 교육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의 등대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성 발달과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성취감을 향상 시키며 다양한 영역의 경험과 함께 즐기는 놀이활동,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래 아이들끼리 추억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이 컸지만 연령이 높아질 수록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해서 일정을 정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해온 자녀돌봄품앗이 ” 우이짱 “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돌봄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견학활동]**

이음피움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봉제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바늘에 실도 꿰어보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외 활동]**

오랜만에 아이들과 지라산에 올라가서 자연과 하나되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 상쾌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내려오는 길은 발걸음도 가벼운 모습이 보이시죠? 긴 여정이었지만 끈끈한 정이 생긴거 같아요.



**[독후 활동]**

책을 통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전에 열심히 그림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방과후 학습품앗이]**

혼자 할 때보다 같이하면서 깔깔거리면 서로에게 힘이되어주는 시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보드게임 중]**

모이기만 하면 새로운 활동을 찾아서 놀이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보드게임에 열중하는 사진입니다.

# 우리 동네 돌봄공동체 모여라!

<b>공동체명</b>	한글특공대		
<b>돌봄주체자 수</b>	3명	<b>돌봄아동 수</b>	8명
<b>주 돌봄 대상 연령</b>	(✓) 유아기 3~6세	<b>주 활동지</b>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b>돌봄 공동체 소개</b>	<p><b>&lt; 돌봄공동체의 소개 및 시작 계기 &gt;</b></p> <p>저희 한글 특공대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을 계기로 놀이터에서 만남을 갖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요즘 아이들이 한글을 시작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던 중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과 장난감 대여를 이용했던 기억이 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이용 문의 중 자녀돌봄품앗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에서 한글 특공대라는 품앗이 그룹은 한글이라는 매개로 공동육아 모임을 하며 아이들과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와 육아의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룹이 되고자 합니다.</p> <p>또한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앞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봅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현재 활동_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 흥밋거리 등 &gt;</b></p> <p>저희 한글특공대는 7월부터 시작한 새싹 품앗이입니다. 한글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첫 발을 시작했습니다. 첫 활동은 놀이로 접근하는 한글 익히기로서 플레이콘으로 글자모양을 만들며 낚시놀이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7월은 한 번의 활동으로 다음 번을 기약하여야만 했습니다. 기회만을 기다리다 아쉽게 끝나버린 7월 활동이 너무 아쉬워서 8월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돌봄 품앗이 담당자 선생님의 여러 가지 활동방법을 참고하여 드디어 8월에는 어렵지만 한번은 같이 활동하고 다른 활동은 비대면으로 한글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신없이 품앗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돌봄 공동체 활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좀 더 아이들과의 활동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통해 또래 엄마들간의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 같습니다.</p> <p>우리 공동체의 자랑거리라면은 아직 하고 싶은 활동들이 무궁 무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그룹 말고도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의 다른 그룹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글 특공대라는 품앗이 그룹에 맞게 활동해 보고자 합니다.</p> <p><b>&lt; 돌봄공동체의 미래 포부_향후 계획, 발전 가능성 등 &gt;</b></p> <p>한글이라는 공통 주제로 모이게 되었지만 아이들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커 나갈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연교육과 공동수업을 통해 많은 활동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번 활동 중 옥상 텃밭에 키운 블루베리를 수확하면서도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단둘이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니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독박 육아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돌봄 활동은 나와 자녀, 가족 더 나아가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특공대 그룹을 통해 아주 멋진 재산을 얻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가는 한글특공대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p>
--------------------------	---

<돌봄공동체 활동 사진>



**[옥상 텃밭]**

옥상 텃밭에 키운 블루베리를 따는 아이들이에요~직접 열매를 따 보며 식물이 주는 고마움도 느끼고 서로 좀 더 친해질 수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비대면 활동 - 종이접기, 한글 놀이하기]**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각 가정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다양한 색종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자르고 접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꼭 같이 역할놀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글놀이]**

가, 나, 다~~

여럿이 같이 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한글놀이 활동사진입니다.